

자동차·조선 등 협력업체 중심 구조...파장 예의주시

‘노란봉투법’ 시행...광주·전남 산업계 촉각

하청 노동자 교섭권 강화 등에 지역 기업 부담 커져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노사, 기대·우려 교차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산업현장 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조선 협력업체 등 하청 구조가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산업현장에서 법 시행의 파장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돼 노사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동시에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도 일정 부분 제한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이후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의 갈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섭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사 양측의 기대와 우려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서 배제돼 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원청 기업의 교섭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첫날부터 일부 하청 노동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서는 등 현장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임금이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이날 급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변화는 광주 지역 산업 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과 금속·기계 분야 중소기업업체가 밀집한 구조를 갖춰 원·하청 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공장 등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 네트워크와 금형·부품 업체 등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전남 지역에서도 제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조선·철강·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과 협력업체 중심 산업 구조가 형성돼 있어 원·하청 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제철·항만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많은 만

금 법 시행 이후 교섭 구조 변화와 노사 관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에서는 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웠던 구조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역 경영계에서는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업체의 경우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섭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나 제조 협력업체들은 원청과의 납품 단가 문제와 노동조건 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교섭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노사 모두 법 취지를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의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교섭 방식과 노사 협의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사 출신인 재은지 시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완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특히 자동차와 제조업 협력업체가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원·하청 간 교섭 구조가 점차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가 새로운 교섭 구조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 서구에서 주유하면 최대 12% 할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서구 지역 주유소에서 운영 중인 ‘은누리 페이백 이벤트’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구는 고품질상점가 주유소 22곳에서 디지털 은누리상점권으로 결제할 경우 7% 할인에 5% 페이백 혜택이 추가 적용돼 최대 12%의 체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소상공,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은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

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 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 형태로 구분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스마트 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st/index.d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j1404@

“연비 끝판왕”...기아, ‘더 뉴 니로’ 계약 시작

기아가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대표 친환경 SUV ‘더 뉴 니로’를 공개하고, 10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

‘니로’는 2022년 1월 출시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4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디자인 완성도와 안전·편의 사양을 끌어올렸다.

동급 최고 수준의 복합 연비 20.2km/ℓ를 확보하면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최신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니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워크 어웨이 락, 스테이 모드, 디지털 키 2 등을 통해 한층 확장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10 에어백,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고도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탑재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먼저 기아는 니로에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픈핏 유니티티드’를 반영해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인상의 외관을 완성했다.

전면부는 수평·수직 라인을 강조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을 적용해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인상을 구현했으며, 정교하게 구성된 전면 범퍼와 그릴 하단부로 단단한 존재감을 더했다.

측면부는 절제된 차체 라인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루프 라인이 세련된 실루엣을 강조했다. 후면부는 테일게이트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에 대각선 형태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래픽이 후측면을 부드럽게 감싸 안정감을 주고 넓어 보인다.

니로의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디자인 완성도·상품성 강화...복합 연비 20.2km/ℓ 스마트 회생제동·스테이 모드 등 특화 기능 탑재



방으로 개방감을 강조하고, 신규 사양 및 소재를 적용해 쾌적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거듭났다.

기아는 니로에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결합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간결한 대시보드 구조와 함께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또 운전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적용하고, 동승석에는 동승자의 편리한 승하차를 돕는 ‘이지 액세스’와 운전자 또는 뒷좌석 탑승객이 동승석 시트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를 추가했다.

아울러 2열에는 기존 2단 조절 방식보다 각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시트를 탑재했다.

니로는 신규 색상 ‘아이보리 실버’를 포함한 7종의 외장 색상과 ‘넵 데이지&

브라운 인테리어’, ‘블루 그레이 인테리어’ 등 신규 2종을 포함한 3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니로는 우수한 연비에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 탑재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했다.

니로는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ps, 최대 토크 27.0kgf·m, 최대 복합연비 20.2km/ℓ의 효율적인 성능을 확보했다.

또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하이브리드 계측형 예측 제어 시스템, 스테이 모드 등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아울러 신규 인포테인먼트 및 안전·편의 사양을 다채롭게 적용해 차급 이상의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제10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제22회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신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 후원시에도 진행합니다.
※ 취·입금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 (사)세경문화재단 **건강라이프**

후원(여정): **신민사** **전남협업인 나누사랑의 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대한인심사자 후원회** **광주광역시**